

기획시리즈-성인 열전 10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첫 제자,
안드레아 사도



성인명 안드레아 (Andrew)
축일 11월 30일
성인구분 성인
신분 사도, 순교자
활동지역
활동연도 +1세기
같은이름 안드레아스, 앙드레, 앤드루, 앤드류

성 안드레아, 십자가의 사도

대림시기를 맞이할 즈음인 11월30일에 교회는 성 안드레아 사도를 기억한다. 이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성 베드로 사도의 아우라는 점, 갈릴래아의 벳사이다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특이하게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점 정도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열두 사도들 중에서도 성 베드로 사도와 성 요한 사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네 입에 오르내리는 성인에 대해서 좀 더 짚어 보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셨고, 요한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주셨다면, 안드레아에게는 거룩하신 스승의 십자가를 드러내 보일 사명을 주셨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교회가 정녕 교회다워지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곧 믿음과 사랑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다. 그러기에 성 안드레아를 십자가의 사도로서 기억하면 좋겠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성 안드레아도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언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여느 십자가와는 다르게 X자 모양으로 생긴 십자가에 이를 동안이나 달려 있다가 숨을 거두었다. 그렇지만 이런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성인을 십자가의 사도라고 일컫는 것은 아니다. 기록을 보면, 성인은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보는 순간 기뻐서 외쳤다.

“오, 참 좋은 십자가여, 너는 내 주님의 몸을 모심으로써 아름다워졌구나! 내가 너를 참으로 오래도록 바랐고 간절히 사랑했으며 끊임없이 찾아마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마련되었으니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뽐혀 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주님께서는 너로 해서 나를 받아 주시고 너로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성 안드레아와 스코틀랜드의 각별한 인연

성인은 60년 11월30일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성인의 유해는 순교한 지 300년이 지나서 콘스탄티노 황제에 의해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다. 그런데 특별히 스코틀랜드에서 1천 년경부터 널리 공경을 받았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공식 수호성인이 된 것은 1320년에 와서다. 그 해에 스코틀랜드의 지도층 인사들은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려는 잉글랜드의 시도에 맞서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여 발표했다(아브로스 선언). 이는 스코틀랜드의 독립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성인은 수호성인으로서 확고하게 인식되었다.

성 안드레아 사도가 스코틀랜드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세기부터다. 당시 왕이던 왕거스 1세가 성인의 유해를 스코틀랜드로 옮겨 모시고는 그곳을 성 안드레아 마을이라 불렀고, 그곳에 수도원을 지었다. 그리고 그 후계자인 왕거스 2세가 수도인 에든버러 부근까지 침공해 온 잉글랜드 전사들에 맞서 존망이 걸린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군사의 수를 보더라도 아주 열세인 상황에서, 왕거스 2세는 전투 전날 밤에 기도를 했다. 성 안드레아에게 자신이 만약 싸움에서 이긴다면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으로 모시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전투 당일, 하늘에는 X자 모양의 구름이 떠 있었고, 승리는 왕거스 왕의 몫이었다. 이후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파란색 바탕에 성인의 상징인 X자 모양의 십자가를 흰색으로 새겨 넣은 깃발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1385년부터는 이 깃발이 스코틀랜드의 상징으로, 곧 국기로 사용되었다.

중세기의 인기 많은 순례지로서 16세기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이 찾던 성 안드레아 마을에는 성인의 치아, 무릎뼈, 팔과 손가락의 뼈들이 보존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유해들은 16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혁명이 일어났을 때 훼손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870년에는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 아말피(Amalfi)의 대주교가 성인의 어깨뼈 일부를 스코틀랜드로 보냈고, 이 유해는 에든버러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모셔졌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각별한 사이

성인의 축일인 11월30일을 스코틀랜드에서는 휴일로 지낸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는 따라오는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정할 정도로 확실한 휴일로 지낸다. 그리고 2006년에는 이날이 은행 휴무일로도 정해졌다. 자기 나라의 수호성인 축일에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것은 북아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다(성 파트리치오). 전통적으로 이날은 스코틀랜드의 성 안드레아 대학교 학생들도 등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날, 영국 수상과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의 제1 장관이 성 안드레아 축일 기념 메시지를 발표하고, 전국에 걸쳐서 음식과 음악과 춤을 곁들인 그들 나름의 문화행사들을 펼친다.

성인은 또한 잉글랜드의 가터 훈장에 이어 세계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품격 있는 훈장들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 영경귀 훈장의 수호성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 안드레아가 스코틀랜드만의 성인은 아니다. 성인은 그리스, 러시아, 바베이도스 등의 국가들과 이탈리아의 도시 아말피의 수호성인이기도 하다. 특히 바베이도스에서는 성인의 축일을 독립기념일로 지낸다. 그리고 성인은 바베이도스를 상징하는 문장(紋章)에 포함되는 상징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될 정도로 기러지며, 국가에서 공헌자를 표창할 때도 성인의 이름이 들어간 작위나 칭호를 수여한다.

11월30일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다. 동부 유럽과 중부 유럽의 나라들, 가령 루마니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에서는 이날이 남자 친구 없는 아가씨들이 장래의 남편감을 점쳐 보는 날이다. 루마니아에서는 젊은 여성이 밀알 41개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베개 밑에 놓아두는 풍습이 있다. 만일 그날 밤에 그 여성이 누군가가 와서 그 밀알들을 훔쳐가는 꿈을 꾸면, 그것은 곧 이듬해에 결혼하게 될 조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날 밀밭을 녹여 열쇠 구멍으로 부어서 차가운 물속으로 흘려보내는 풍습도 있다. 그렇게 해서 밀밭이 굳어 생긴 형태가 장차 그 아가씨의 남편이 될 사람의 직업을 말해 준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기 때문이다.

어부들, 생선 장수들, 엄마가 되기를 바라는 여성들, 가수들, 독신녀들, 처녀들, 목 부위의 질환, 통풍의 수호성인으로서도 매우 바쁜 성 안드레아는 그만큼 인기도 높다. 이를테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이 해마다 성 안드레아 축일이면 구글 두들(Google Doodle)을 게재할 정도로 말이다. 구글 두들이란 구글 홈페이지에 기념일이나 행사, 업적, 인물을 기념하고 기리는 특별 로고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월간 레지오 마리아, 2016년 11월호, 이석규 베드로(CBCK교리교육위원회 위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2023년
11월 26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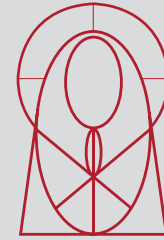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가를 것이다.
(마태오 25,31-32)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예제키엘 예언서34,11-12,15-17
- # 화답송 시편 23(22),1-2,7,2L-3,5,6(© 1)



후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5,20-26,28
- # 복음 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 복음 마태오,25,31-46
- # 성가번호 입당 41 봉헌 212,220 성체 174, 506 파견 75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김순분(안나) - 오욱자(데레사), 어부들의 마을, 오경선(원선시오) 가족, 박재영(요아킴) 가족, 박 스테파노 가족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이금주(베드로) - 가족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한석희(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미카엘) - 가족
- 몬시뇰 Robert Zamorski - 이대우(베드로) 부부
- 이상배, 지순금 - 이종권(베드로) 가족
- 정건섭, 정혜자 - 이종권(베드로) 가족
-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 영원한 도움의 성모Pr.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안현정(소화데레사)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가정 - 이막동(아네스)
- 김영필(안토니오) - 김효근(다미아노), 김경근(이나시오)

- 박락준(베드로), 이서형(요안나) 가정 - 정주원(울리아나), 김한천, 이종권(베드로) 가족, 오토마스, 오로사, 박화성(헬레나), 전옥주(글라라) 유미선(클라라), 김순옥(울리아)

- 김성일(베드로), 정영선(플로라) 가정 - 정주원(울리아나), 김한천
- 김선정(세실리아) - 백헬렌
- 오현주(요한)/오욱자(데레사) - 변태용(요셉)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57명)..... \$1,131
- 2차헌금 (Works of Mercy Campaign)..... \$360
- 교무금.....\$3,210

최두철(1-12)	안을봉(9-11)	오용운(10-12)
최완준(10-12)	서정근(11-12)	장수지(7-9)
이용문(11)	이광재(11-12)	김진(9-12)
- 감사헌금.....정마이클 \$100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울리안나
- 방진숙(데레사) 송희수(글라라)

2023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공연

- 일시 및 장소 : 12월 17일(주일) 오전 10시 20분 친교실
- 주일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악기 연주, 성탄 연극, 캐롤 합창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관바랍니다.

2023 성탄 맞이 성가/크리스마스 캐롤/ 생활성가 경연대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25일(월) 성탄 미사 후 친교실
- 구역별 2인이상 참가(독창 불가)
- 성가/크리스마스 캐롤/생활성가/신앙 관련 건전 가요에 한하여 구역별로 1곡 경연
- 시상: 1/2/3등 및 특별상

2차 헌금

- 12월 3일 : 크리스마스 꽃장식

대림 판공 일정

- 1차 판공 프린스턴 순대혁 루치오 신부님 12월 3일 (주일) 오전 10시30분 부터 11시20분 까지
- 2차 판공 이튼성당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 12월 10일 (주일) 한국어 미사 이후부터

친교 봉사 일정

- 12/17 에디슨 • 1/21 올드브릿지 • 2/18 이스트브런스워

11월 셋머셋 구역 빵과 포도주 봉헌자

- 11/26 유병기, 유용희

성당 교우 주소록 갱신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주소록 갱신을 위한 양식을 배부합니다. 작성완료하신 후 각 구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영성체 예식 안내

- 12월 3일 (주일) 미사 중 첫영성체 예식이 있습니다.
- 첫영성체를 받는 안가연(루시아), 이연준(요한), 김규민(케빈), 김민결(마크), Sophia Barbiero 5명의 학생들을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된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일시 및 장소 : 12월 8일(금) 오전 9시 영어미사, 성당 저녁 7시 영어미사, 경당

크리스마스 성당 외관 장식 자원 봉사자 모집

- 미국 신심단체 Holy Name Society 에서 12월 2일(토) 오전 9시 성당 외관 크리스마스 장식을 도와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례분과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2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대상 : 전례분과 단체장(독서단, 제대회, 성가단, 복사단)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 12월 1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노스브런스워 구역 모임(구역장: 변인순 엘리자벳)

- 일시 및 장소 : 11월 2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올드브릿지 구역 모임(구역장: 박화성 헬레나)

- 일시 및 장소 : 11월 2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메타천 구역 모임(구역장: 허정 아나스타시아)

- 일시 및 장소 : 12월 3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사우스브런스워 구역 모임(구역장: 김현결 토마스아퀴나스)

- 일시 및 장소 : 12월 3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3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요셉회 송년 모임 (회장: 변태용 요셉)

-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반석회 송년 모임

- 일시 및 장소 : 12월 16일(토) 오후 12시 친교실

대건회/야고보회 송년 모임 (회장: 오용운 토마스아퀴나스)

- 일시 및 장소 : 12월 16일(토) 오후 5시 친교실

사무장 모집 공고

- 응모자격: (1) 본당 신자, (2)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신 분, (3) 생활영어 가능하신 분

- 문의 : 성당 사무실

제1독서: 예제키엘 예언서34,11-12.15-17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 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자기 가족이 흩어진 양 떼 가운데에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족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 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 떼를 구해 내겠다. 내가 몸소 내 양 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 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 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 떼를 먹이겠다. 너희 나의 양 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5,20-26.28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망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망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릴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25,31-4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이야,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보았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신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